

WTO 출범 2개월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WTO 체제가 출범한지 벌써 3달째를 맞게 되었다. 아직 일반 양축농가야 변화가 피부로 느끼지 않겠지만 서서히 지반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반이 흔들릴때 일본 고베 대지진과 같은 폭발로 변하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처럼 서서히 사막화로 축산업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갈 수 있다.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대로 UR협상 타결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개방에 대한 압력은 점점 거세어질 전망이다.

미국은 냉장육의 유통기간을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소시지 등 가공제품의 유통기간 연장 요구가 미처 완결되기도 전에 후속타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 술 더 떠 '98년까지는 서서히, 아예 유통기간을 없애겠다고 발표하므로써 요구만 하면 화끈하게 들어주는 나라로 한국 정부의 통상협상 대표는 통 큰 사람으로 국제무대에 알려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국내 축산물의 유해물질(항생제, 설파제, 농약 등) 잔류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히 대책을 추진해야 할 문제이다. 유해물질 잔류문제는 직접적으로 생산비와 관련되므로 종합적인 방역·위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가축의 분노 처리 문제와 함께 금년에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산농가를 불안하게 하는 것중의 하나는 안정된 사료공급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하는 문제이다. 중소가축은 배합사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사료효율이 중요하므로, 배합사료 원료에서부터 종축에 이르기까지 수입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료값의 인상은 양축농가의 소득감소는 물론,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쉽게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140대의 옥수수를 사용하게 되면 양축농가의 숙원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물론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원료사료에 대한 관세의 무세화도 이루어져 최소한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수입개방에 앞서서 수입 축산물이 유통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수출국들의 요구가

66

앞으로 남은 10개월과
 '96년 1년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여야 '97년 수입개방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지난 2월 17일까지
 UR협상은 끝이 났지만 UR협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지금부터이다.

99

점점 거세어지는 것을 WTO 출범 2달동안에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 유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지만, 계류, 도축, 처리, 가공, 운반, 판매장에서 냉장육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종사원들의 교육 등을 어떻게 투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는 각론이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냉장육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을 제조회사 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나 종업원 훈련,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유해물질 잔류문제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와 양심에 호소하는 이외에 휴약기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는 미흡하다.

사료가격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은 있지만, 물류 비용을 절감하거나 원료를 구매하는데 세제 등으로 사료생산비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세제가 흔들리고 형평의 원칙이나 또는 징세한 돈은 농민에 되돌려 준다는 등 모든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다. 가축의 분뇨처리가 이제는 자원화로 방향은 전환되기

시작하지만, 자원화에 필요한 시험 연구자료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양축가에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 어떻게 자원화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홍보도 미약하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약자가 강자와 싸워서 이기려면 뭉치는 길 밖에 없다는데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뭉치는 지름길인 조합, 협회 등이 제구실을 하고 뭉칠 수 있도록 시멘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조금제도에 대해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는 형편이 되고 있다.

계열화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수립된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뭉쳐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뭉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천이 없다.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외쳐되었고 수출물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들을 잘 알지만 해결은 되지 않고 있다.